

## 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잠정이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이전주\*\* · 박재환\*\*\*

### 〈요 약〉

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는 Phillips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실체별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수정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 따라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자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 실증 분석한 결과,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적자회피기업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이익조정 유인이 낮은 기업에서는 적자회피기업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적절한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사용하여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져 더 적은 노력의 투입으로 더 높은 감사품을 제공할 수 있어 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로서 편의가 존재하는 재무적발생액을 사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 측정치 사용하여 동 측정치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고, 동 측정치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감사인일치성, 잠정이익수정, 감사품질, 연결실체

\* 본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주저자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하여 수정 보완 하였음.

\*\*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 grscau@gmail.com, 주저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1983@cau.ac.kr, 교신저자

##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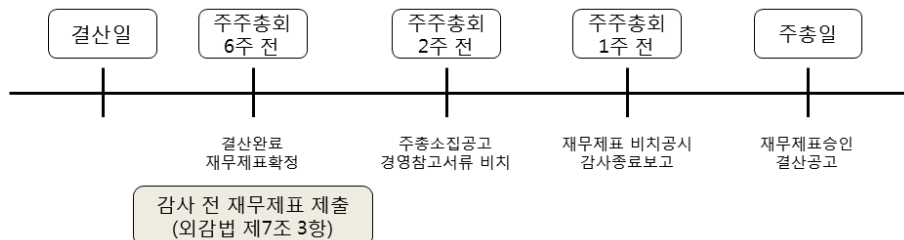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다. 2014년 감사기준과 회계기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을 도입하였다. 신국제감사기준은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관계없이 지배회사 감사인이 별도의 종속회사 감사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대두되었다(박재환 등 2014).

지배회사와 연결실체 내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감사절차가 확대되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연결 실체내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에 대한 지식 전이효과(knowledge spillover)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의 효율성 및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audited F/S)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경영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사품질의 측정치로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경영자의 잠정이익과 감사 이후의 확정이익의 차이(이하 “잠정이익 수정 정도”)는 경영자의 의도와 감사인의 능력을 모두 반영하는 감사품질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Bamber and Bamber 2009 ; Lennox et al. 2014).

우리나라는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하여 외부 감사 이전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sup>1)</sup> 기업이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경영자가 공시하는 잠정이익과 감사이후의 확정이익의 차이인 “잠정이익 수정 정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1)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제20조 제3항 제6호)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임원, 감사(감사위원)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014년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으로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인 일치에 따른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라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모두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공경태와 박준완 2014), 감사인 일치성이 감사품을 향상을 시키는지에 대하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실체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할 경우 연결 실체에 대한 회계정책 등의 내용과 정보 이전 효과성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의사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감사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손성규 외 2008). 손성규 외(2009)는 타감사인 비중이 낮을수록 개별 재무제표의 감사가 더 빨리 완료될 수 있어 결산일과 감사보고서의 발행일 간 시차가 줄어들어 감사의 적시성이 높아지고, 연결재무제표의 수정 사항이 적어 신뢰성 또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상태 등(2010)과 이명곤 등(2011)은 주 감사인 비율이 높을수록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더 작고,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므로 감사인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 일치성을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주감사인의 비율로 측정하여 분석한 박재환 등(2014)은 감사인 일치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적게 투입되는 반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감사인 일치성에 따른 감사품을 연구한 신혜정, 한중수(2015)는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감사품을 제공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높은 감사인 일치성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돼 감사품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일치성에 관해 연구한 김유석 등(2009)은 동일 감사인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와 낮은 감사시간이 투입되는 현상에 대하여 모기업 감사로부터 얻은 지식이 계열회사 감사에 이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의 효율성보다는, 경쟁으로 인한 보수할인과 감사시간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감사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동일 감사인의 효과를 분석한 라채원과 이재홍(2011)은 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감사품질이 저해됨을 보고하였다. 송순영과 김상현(2014)은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 대형 회계법인(Big4)에게 감사 받은 기업에서 이익조정 유인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 바, Big4 감사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로 인한 피감사기업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감사품질에 관해선 서로 다른 결과가 혼재되었지만 감사인이 일치함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 간 지식의 전이효과에 따른 감사보수의 할인을 검증한 Simunic(1984)과 Palmrose(1986)등에서와 같이 특정 서비스로부터 얻은 지식이 감사 서비스에 영향을 주듯이 연결실체 내 동일 감사인의 지식의 전이효과로 연결실체 내 동일감사인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감소될 수 있다.

감사보수의 감소는 감사인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보수할인(low balling)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특히 감사계약을 위한 초도감사보수의 할인 현상은 다수의 연구(Gregory and Collier 1996 ; Francis and Simon 1997 ; Walker and Casterella 2000)에서 확인되었다. 박재환, 박상연(2011)은 감사시간을 결정짓는 일반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감사보수의 할인은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적인 부(-)의 관련성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잠정이익의 수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mber and Bamber(2009)와 Lennox et al.(2014)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은 이익의 질 또는 감사품질의 대용치(proxy)로서 편의(bias)가 존재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감사로 인한 재무제표의 수정정도가 측정가능할 경우 감사품질(audit quality)의 보다 적합한 대용치로서 의미를 갖으나 기업은 사전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작성할 의무가 없어 잠정이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외감법을 개정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외감법 제 7조 제①항) 외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전(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총 4주전)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sup>2)</sup> 따라서 감사 전 재무제표에 경영자와 외부 감사인 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감사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며, 이러한 수정정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감사품질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노준화와 신유진 2018).

K-IFRS 의무도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차이를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보고, K-IFRS 도입이 의견의 불일치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 김용식(2013)은 제도의 도입 이후 의견 불일치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의견 불일치가 클수록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 전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잠정이익 수정여부 및 수정 크기를 종속변수로 분석을 실시한 이은철과 박석진(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감법 개정 이후 잠정이익을 수정하는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스닥 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군에서 더 명확한 결과를 보였다.

2) 모든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다.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감사인의 특성인 감사인의 전문성, 숙련된 감사인력의 투입 비율,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연구한 노준화와 신유진(2018)에 따르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수록 잠정이익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하향조정되었으며 감사보수와 감사인의 전문성이 잠정이익의 수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혼재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 전 재무제표에 경영자와 외부 감사인 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감사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며, 이러한 수정정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감사품질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대용치(proxy)로 이용하여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잠정이익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감사인 일치성은 잠정이익 수정정도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 설계 및 표본선정

#### 1. 연구모형

2013년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감사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 정도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품질의 더 나은 측정치(Bamber and Bamber 2009 ; Lennox et al. 2014)가 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수정정도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수정정도를 잠정이익 수정정도 및 여부를 이용하여 다음의 연구 모형(1)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Adjust = & \alpha + \beta_1 Conformity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INVREC \\ & + \beta_5 ROA + \beta_6 CFO + \beta_7 Loss + \beta_8 OWN + \beta_9 FORE \\ & + \beta_{10} Big4 + \beta_{11} Opinion + \beta_{12} Initial + Industry + Year + \epsilon \end{aligned} \quad (1)$$

여기서,

*Adjust* : 잠정이익의 수정 (*Adj\_NI* or *Adj\_Dummy*)

*Adj\_NI* : 공시된 잠정이익과 감사 후 당기순이익의 차이의 절댓값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Adj\_Dummy* : 공시된 잠정이익 대비 감사 후 당기순이익이 수정되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onformity\_1* : 개수로 나타낸 감사인 일치성의 대용치

*Conformity\_2* : 자산으로 나타낸 감사인 일치성의 대용치

*Size* : 기업 규모, 자산총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 부채비율,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눈 값

|               |                                        |
|---------------|----------------------------------------|
| <i>INVREC</i> | : 감사복잡성,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 <i>ROA</i>    |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
| <i>CFO</i>    |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 <i>Loss</i>   | : 손실더미, 전기 순손실 보고기업일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 <i>OWN</i>    | : 대주주 지분율                              |
| <i>FORE</i>   | : 외국인 지분율                              |
| <i>Big4</i>   | : 감사인의 규모, <i>Big4</i>                 |

모형 (1)은 감사인의 일치성에 따른 수정사항(*Adjust*)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Conformity* 변수는 감사인 일치성의 대용치로 모기업 및 모기업과 감사인이 일치하는 자회사의 개수 혹은 자산/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의 개수 혹은 자산으로 정의하며 기업 개수에 의한 측정치는 *Conformity\_1*, 자산규모에 의한 측정치는 *Conformity\_2*로 한다.

기업규모(*Size*), 수익성(*ROA*), 부채비율(*Lev*)는 경영자의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한 변수이다(Kinney and McDaniel 1989 ; DeFond and Jambalvo 1994).

Klein(2002)는 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사이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eune and Johnstone(2012)에 따르면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공시오류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대용치로 대주주지분율(*OWN*)과 외국인지분율(*FORE*)를 추가하였으며 각각 부(-)과 정(+)의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감사품질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인 감사복잡성(*INVREC*), 감사인 규모(*Big4*), 초도감사여부(*Initial*)와 적정의견을 받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감사의견더미(*Opinion*)를 추가하였다.

## 2.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신국제감사기준 적용 이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동질성을 위해 금융업과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및 관리종목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인일치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재무자료 및 지분율 등의 자료는 FnGuide 사의 DataGuide와 상장사협의회 TS2000을 통해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변수의 극단치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총 4,01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선정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

| 표본 선정 내용                           | 표본수     |
|------------------------------------|---------|
| 2014-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13,178  |
| 12월 결산 기업이 아닌 경우, 금융업, 관리종목 제외     | (939)   |
| 종속회사 및 감사인 일치성 측정 불가               | (6,877) |
| 잠정이익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                   | (1,346) |
| 최종표본                               | 4,016   |

## IV. 실증분석

### 1. 기술통계량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 정도는 평균 0.01, 중위수 0의 값을 보였으며 수정더미는 평균 0.2, 중위수 0의 값을 보였다. 주 관심변수인 감사인일치성 변수(*Conformity*)의 평균은 *Conformity\_1* 0.93, *Conformity\_2* 0.86, 중위수는 1의 값을 보여 대체적으로 감사인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변수의 평균은 26.21, 중위수 25.95였으며 부채비율은 0.43, 0.43, ROA는 0, 0.02를 보였다. 표본의 29%는 전기에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대주주지분율은 평균 38%,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7%로 나타났다. 감사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인(*INVREC*)는 평균 0.25, 중위수 0.23으로 나타났으며 유동비율은 2.46, 1.53을,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변수는 0.04의 평균과 중위수를 보였다. 전체 약 99퍼센트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45%의 기업이 대형감사인(Big4)에게 감사를 받았다. 19%의 기업 연도가 초도감사를 받았으며 수출비중은 평균 18퍼센트, 종업원 수의 제곱근의 평균은 17.44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중위수   | 최댓값   |
|---------------------|-------|-------|--------|-------|-------|
| <i>Fee</i>          | 11.36 | 0.62  | 10.31  | 11.23 | 13.7  |
| <i>Hour</i>         | 7.06  | 0.62  | 6.05   | 6.92  | 9.43  |
| <i>Adj_NI</i>       | 0.01  | 0.03  | 0      | 0     | 0.21  |
| <i>Adj_Dummy</i>    | 0.2   | 0.4   | 0      | 0     | 1     |
| <i>Conformity_1</i> | 0.93  | 0.2   | 0.0004 | 1     | 1     |
| <i>Conformity_2</i> | 0.86  | 0.32  | 0      | 1     | 1     |
| <i>Size</i>         | 26.21 | 1.38  | 23.9   | 25.95 | 31.08 |
| <i>Lev</i>          | 0.43  | 0.2   | 0.05   | 0.43  | 0.86  |
| <i>ROA</i>          | 0     | 0.11  | -0.5   | 0.02  | 0.21  |
| <i>Loss</i>         | 0.29  | 0.45  | 0      | 0     | 1     |
| <i>OWN</i>          | 0.38  | 0.17  | 0.07   | 0.37  | 0.78  |
| <i>FORE</i>         | 0.07  | 0.11  | 0      | 0.03  | 0.56  |
| <i>INVREC</i>       | 0.25  | 0.14  | 0.01   | 0.23  | 0.62  |
| <i>CurrRatio</i>    | 2.46  | 2.69  | 0.36   | 1.53  | 16.06 |
| <i>CFO</i>          | 0.04  | 0.08  | -0.23  | 0.04  | 0.24  |
| <i>Opinion</i>      | 0.99  | 0.07  | 0      | 1     | 1     |
| <i>Big4</i>         | 0.45  | 0.5   | 0      | 0     | 1     |
| <i>EXP</i>          | 0.18  | 0.28  | 0      | 0     | 0.98  |
| <i>Initial</i>      | 0.19  | 0.39  | 0      | 0     | 1     |
| <i>EMP</i>          | 17.44 | 12.42 | 2.83   | 14.28 | 73.4  |

1) 변수에 대한 정의는 모형 참조

## 2. 상관관계분석

<표 3>에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 관심변수인 감사인 일치성 변수(*Conformity*)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 잠정이익수정여부(*Adj\_Dummy*)와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띤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외국인 지분율(*FORE*), 감사인 규모(*Big4*) 등의 변수와도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고, *ROA* 변수는 자산으로 측정 한 감사인일치성(*Conformity\_2*)와만 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감사의 복잡성(*INVREC*)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대주주지분율(*OWN*), 초도감사 여부(*Initial*), 감사의견(*Opinion*) 변수와는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Pearson 상관관계분석

| VAR                 | <i>Adj_NI</i> | <i>Adj_Dummy</i> | <i>Conformity_1</i> | <i>Conformity_2</i> | <i>Size</i> | <i>Lev</i>  | <i>ROA</i>  |
|---------------------|---------------|------------------|---------------------|---------------------|-------------|-------------|-------------|
| <i>Adj_NI</i>       | 1             |                  |                     |                     |             |             |             |
| <i>Adj_Dummy</i>    | 0.72682***    | 1                |                     |                     |             |             |             |
| <i>Conformity_1</i> | 0.05811***    | 0.04585***       | 1                   |                     |             |             |             |
| <i>Conformity_2</i> | 0.06717***    | 0.06713***       | 0.83203***          | 1                   |             |             |             |
| <i>Size</i>         | -0.14499***   | -0.100223***     | -0.29405***         | -0.27765***         | 1           |             |             |
| <i>Lev</i>          | -0.03578**    | -0.03494*        | -0.08348***         | -0.06845***         | 0.26876***  | 1           |             |
| <i>ROA</i>          | -0.22550***   | -0.13307***      | -0.01295            | -0.03692**          | 0.24616***  | -0.26468*** | 1           |
| <i>Loss</i>         | 0.06972***    | 0.02483          | 0.01002             | 0.019141            | -0.21271*** | 0.23097***  | -0.46107*** |
| <i>OWN</i>          | -0.07512***   | -0.05128***      | -0.00926            | -0.00314            | 0.23823***  | -0.07970*** | 0.27210***  |
| <i>FORE</i>         | 0.01301       | -0.00074         | -0.08293***         | -0.06691***         | 0.43226***  | -0.09696*** | 0.20252***  |
| <i>INVREC</i>       | -0.07333***   | -0.06361***      | 0.11953***          | 0.10900***          | -0.09409*** | 0.23617***  | 0.07621***  |
| <i>CFO</i>          | -0.06175***   | -0.03336**       | -0.01255            | -0.01727            | 0.19022***  | -0.16323*** | 0.56583***  |
| <i>Big4</i>         | -0.02676*     | -0.02612*        | -0.07739***         | -0.09976***         | 0.38487***  | 0.04794***  | 0.08685***  |
| <i>Opinion</i>      | -0.14526***   | -0.09748***      | -0.01149            | -0.00087            | 0.03330***  | -0.06264*** | 0.18391***  |
| <i>Initial</i>      | 0.01016       | 0.02325          | -0.00450            | 0.00605             | -0.06607*** | 0.03781**   | -0.04090*** |

〈표 3〉 Pearson 상관관계분석 (계속)

| VAR                 | Loss        | OWN        | FORE        | INVREC      | CFO         | Big4        | Opinion | Initial |
|---------------------|-------------|------------|-------------|-------------|-------------|-------------|---------|---------|
| <i>Adj_NI</i>       |             |            |             |             |             |             |         |         |
| <i>Adj_Dummy</i>    |             |            |             |             |             |             |         |         |
| <i>Conformity_1</i> |             |            |             |             |             |             |         |         |
| <i>Conformity_2</i> |             |            |             |             |             |             |         |         |
| <i>Size</i>         |             |            |             |             |             |             |         |         |
| <i>Lev</i>          |             |            |             |             |             |             |         |         |
| <i>ROA</i>          |             |            |             |             |             |             |         |         |
| <i>Loss</i>         | 1           |            |             |             |             |             |         |         |
| <i>OWN</i>          | -0.22763*** | 1          |             |             |             |             |         |         |
| <i>FORE</i>         | -0.16623*** | 0.00435    | 1           |             |             |             |         |         |
| <i>INVREC</i>       | -0.06752*** | -0.00993   | -0.11315*** | 1           |             |             |         |         |
| <i>CFO</i>          | -0.32662*** | 0.21745*** | 0.23234***  | -0.06008*** | 1           |             |         |         |
| <i>Big4</i>         | -0.05751*** | 0.18406*** | 0.22925***  | -0.06102*** | 0.09792***  | 1           |         |         |
| <i>Opinion</i>      | -0.08674*** | 0.05875*** | 0.03134**   | 0.02420     | 0.08841***  | 0.02676*    | 1       |         |
| <i>Initial</i>      | 0.07257***  | -0.00116   | -0.07390*** | -0.03369**  | -0.05679*** | -0.07071*** | 0.01015 | 1       |

1)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변수에 대한 정의는 &lt;표 2&gt; 참조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 변수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ROA*, 대주주지분율(*OWN*), 감사의 복잡성(*INVREC*), 영업현금흐름(*CFO*), 감사인 규모(*Big4*), 감사의견(*Opinion*) 변수와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전기순손실 여부(*Loss*)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잠정이익 수정여부(*Adj\_Dummy*)는 전기순손실 여부(*Loss*)와 방향은 같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띄지 않았으며 두 변수 모두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변수들(외국인 지분율, 초도감사여부) 외의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같은 관계를 보였다.

### 3. 실증분석

#### 가. 잠정이익수정정도를 이용한 실증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연결실체 내 동일감사인의 비율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2)는 연결실체 내 동일감사인의 자산 비중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의 수정  $R^2$ 는 각각 0.947, 0.942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15.00, 14.9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인 감사인 일치성(*Conformity*)이 잠정이익 수정정도(*Adj\_N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Size*), 수익성(*ROA*), 감사의견 더미(*Opinion*)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채비율(*Lev*), 감사 복잡성(*INVREC*), 전기 순손실 여부(*Loss*)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영업현금흐름(*CFO*), 외국인 지분율(*FORE*)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대주주 지분율(*OWN*)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감사인 일치성과 잠정이익수정간의 실증분석 결과

$$Adj\_NI = \alpha + \beta_1 Conformity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INVREC + \beta_5 ROA \\ + \beta_6 CFO + \beta_7 Loss + \beta_8 OWN + \beta_9 FORE + \beta_{10} Big4 \\ + \beta_{11} Opinion + \beta_{12} Initial + Industry + Year + \epsilon$$

| VAR               | Adj_NI                       |                              |
|-------------------|------------------------------|------------------------------|
|                   | 모형 (1) : <i>Conformity_1</i> | 모형 (2) : <i>Conformity_2</i> |
| Intercept         | 0.16628***<br>(9.82)         | 0.16738***<br>(9.64)         |
| <i>Conformity</i> | 0.00337**<br>(2.10)          | 0.00385<br>(1.47)            |
| <i>Size</i>       | -0.00331***<br>(-6.13)       | -0.00338***<br>(-6.25)       |
| <i>Lev</i>        | -0.00720**<br>(-2.30)        | -0.00710**<br>(-2.26)        |
| <i>INVREC</i>     | -0.01055**<br>(-2.56)        | -0.01044**<br>(-2.56)        |
| <i>ROA</i>        | -0.07972***<br>(-12.28)      | -0.08007***<br>(-12.32)      |
| <i>CFO</i>        | 0.02977***<br>(3.85)         | 0.03002***<br>(3.88)         |
| <i>Loss</i>       | -0.00305**<br>(-2.39)        | -0.00306**<br>(-2.40)        |
| <i>OWN</i>        | -0.00157<br>(-0.48)          | -0.00132<br>(-0.41)          |
| <i>FORE</i>       | 0.02715***<br>(4.93)         | 0.02760***<br>(5.02)         |
| <i>Big4</i>       | 0.00140<br>(1.28)            | 0.00136<br>(1.23)            |
| <i>Opinion</i>    | -0.04785***<br>(-7.07)       | -0.04766***<br>(-7.04)       |
| <i>Initial</i>    | 0.00065<br>(0.51)            | 0.00064<br>(0.50)            |
| 연도 및 산업 더미        | included                     | included                     |
| 수정 $R^2$          | 0.0947                       | 0.0942                       |
| F-값               | 15.00***                     | 14.92***                     |
| 총 표본수             | 4,016                        | 4,016                        |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변수에 대한 정의는 모형 참조

## 나. 잠정이익수정여부를 이용한 실증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정이익 수정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로짓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감사인 일치성과 잠정이익수정간의 실증분석 결과

$$\begin{aligned} Adj\_Dummy = & \alpha + \beta_1 Conformity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INVREC + \beta_5 ROA \\ & + \beta_6 CFO + \beta_7 Loss + \beta_8 OWN + \beta_9 FORE + \beta_{10} Big4 \\ & + \beta_{11} Opinion + \beta_{12} Initial + Industry + Year + \epsilon \end{aligned}$$

| VAR                   | Adj_Dummy                    |                              |
|-----------------------|------------------------------|------------------------------|
|                       | 모형 (1) : <i>Conformity_1</i> | 모형 (2) : <i>Conformity_2</i> |
| Intercept             | 6.2042***<br>(20.5370)       | 6.6289***<br>(22.1346)       |
| <i>Conformity</i>     | 0.4729***<br>(10.2363)       | 0.3977*<br>(2.8296)          |
| <i>Size</i>           | -0.1809***<br>(15.6790)      | -0.1966***<br>(18.3966)      |
| <i>Lev</i>            | -0.3520<br>(1.9262)          | -0.3380<br>(1.7759)          |
| <i>INVREC</i>         | -0.9387***<br>(7.3225)       | -0.9057***<br>(6.8075)       |
| <i>ROA</i>            | -3.1535***<br>(40.9434)      | -3.1739***<br>(41.5296)      |
| <i>CFO</i>            | 1.3792**<br>(4.7699)         | 1.4049**<br>(4.9521)         |
| <i>Loss</i>           | -0.2673**<br>(6.1769)        | -0.2686**<br>(6.2606)        |
| <i>OWN</i>            | -0.2736<br>(1.0458)          | -0.2262<br>(0.7187)          |
| <i>FORE</i>           | 1.0694**<br>(6.1243)         | 1.1243***<br>(6.7908)        |
| <i>Big4</i>           | 0.0324<br>(0.1284)           | 0.0290<br>(0.1026)           |
| <i>Opinion</i>        | -1.9715***<br>(15.0311)      | -1.9366***<br>(14.6151)      |
| <i>Initial</i>        | 0.1460<br>(2.0519)           | 0.1442<br>(2.0052)           |
| 연도 및 산업 더미            | included                     | included                     |
| <i>Log Likelihood</i> | 163.5183                     | 157.7811                     |
| 총 표본수                 | 4,016                        | 4,016                        |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변수에 대한 정의는 모형 참조

모형 (1)은 연결실체 내 동일감사인인 비율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2)는 연결실체 내 동일감사인인 자산 비중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Log Likelihood*는 각각 163.51, 157.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인 감사인 일치성(*Conformity*)이 잠정이익 수정여부(*Adj\_Dumm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모형 (2)에서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감사복잡성(*INVREC*), 수익성(*ROA*), 감사의견더미(*Opinion*)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영업현금흐름(*CFO*)와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기 순손실 여부(*Loss*)와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고, 부채비율(*Lev*)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FORE*)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고, 대주주 지분율(*OWN*)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는 동일감사인 비율을 사용한 감사인 일치성(*Conformity*)과 5% 수준에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잠정이익수정여부(*Adj\_Dummy*)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인 일치성(*Conformity*)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에 대한 수정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다.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이익조정 탐지 분석

다음은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이익조정을 탐지하는 능력이 존재하는 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013년 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법제화되면서 잠정이익의 수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조은정 등 2016 ; 박재환 등 2019)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역량을 나타내는 감사품질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sup>3)</sup>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요소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6>은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감사품질로서 유용한 정보속성을 갖는지 이익조정 유인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3) 조은정 등(2016)의 연구에서는 외감법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금지되면서 감사인의 능력에 변화가 없을 경우 경영자의 능력이 의견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소일 것이라 보았다. 경영자가 회계처리 과정에 대해 적절히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면, 회계 상의 오류나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의견 불일치를 감소시켰고, 외감법 도입 후 이러한 결과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 박재환 등(2019)의 연구에서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과거에서 최근으로 오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6〉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이익조정 탐지

$$EM = \alpha + \beta_1 Abs\_NI + \beta_2 Negative(Conformity) + \beta_3 Abs\_NI \times Negative(Conformity) + \beta_4 Abs\_tacc + \beta_5 CFO + \epsilon$$

| VAR                               | 종속변수=확정이익의 적자회피기업 |            |           |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i>Intercept</i>                  | -0.889***         | -0.896***  | -0.868*** |
| <i>Adj_NI</i>                     | 6.893***          | 6.971***   | 2.351     |
| <i>Negative</i>                   | 0.174             | 0.222      |           |
| <i>Conformity</i>                 |                   |            | 0.101     |
| <i>Adj_NI</i> × <i>Negative</i>   | -10.948***        | -15.079*** |           |
| <i>Adj_NI</i> × <i>Conformity</i> |                   |            | -10.445** |
| <i>Abs_tacc</i>                   | 2.414*            | 2.437      | 4.008*    |
| <i>CFO</i>                        | -4.119***         | -4.182***  | -3.783**  |
| <i>Log Likelihood</i>             | 34.437***         | 34.994***  | 16.385*** |
| 총 표본수                             | 1,011             | 820        | 471       |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EM : Phillips et al.(2003)의 적자회피기업 ; Adj\_NI : 잠정이익 수정정도 \* 100 ; Negative : 잠정이익 <확정이익 일 경우 1, 아니면 0 ; Conformity : 감사인일치성이 100%일 경우 1, 아니면 0 ; Abs\_tacc : 총 발생액에 절댓값을 취한 값 ; CFO : 영업현금흐름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ROA*)이  $-0.02 \leq ROA < 0.02$  인 집단을 연구대상의 표본으로 선정한 후  $ROA \leq 0.02$  일 경우 이익을 상향하려는 조정 수준이 높은 적자회피기업으로 보아 1, 아니면 0으로 설정한다. 다음은 잠정이익 수준에 대한 기업의 이익조정 편의를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잠정이익이 확정이익보다 작을 경우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를 *Negative*로 설정한다.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가 음(-)의 값을 보이는 기업(*Negative*)은 잠정이익을 과대보고하지 않고 확정이익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므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잠정이익의 수정정도(*Adj\_NI*)와 *Negative*를 상호작용하여 이익조정 유인이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의 모형 (1)과 같이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는 적자회피기업과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와 *Negative*의 상호작용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이익수정정도(*Adj\_NI*)는 이

이익조정을 탐지하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조정유인이 낮은 잠정이익수정정도 ( $Adj\_NI$ )와  $Negative$ 의 상호작용변수에서는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하여 잠정이익의 수정정도는 이익조정탐지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인 일치성이 100%인 집단을 대상( $Conformity = 1$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감사인 일치성이 100%인 표본에서도 모형 (1)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잠정이익의 수정정도는 이익조정을 탐지하는 정보속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확정이익이 잠정이익보다 큰 집단( $Negative = 1$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3)에서는 추가적으로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감사인의 일치성이 이익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egative = 1$ 인 집단에서는 잠정이익수정정도( $Adj\_NI$ )는 적자회피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잠정이익수정정도( $Adj\_NI$ )와  $Negative$ 의 상호작용변수는 이익조정기업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동일감사인이 100%일 경우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품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발생액의 절댓값( $Abs\_tacc$ )과 현금흐름( $CFO$ )을 포함하였으며,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하였고,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추가분석

### 1. 감사인 일치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7>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을 사용하여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보수( $Fee$ ) 및 감사시간( $Hour$ )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보수( $Fee$ )와 감사시간( $Hour$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는 감사인 일치성( $Conformity$ )이 감사보수( $Fee$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로서, 감사인 일치성( $Conformity$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표 7〉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간의 실증분석 결과

$$\begin{aligned}
 Fee(or\ Hour) = & \alpha + \beta_1 Conformity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INVREC + \beta_5 ROA \\
 & + \beta_6 CurrRatio + \beta_7 CFO + \beta_8 Loss + \beta_9 OWN + \beta_{10} FORE \\
 & + \beta_{11} Big4 + \beta_{12} Initial + \beta_{13} EXP + \beta_{14} EMP + Industry + Year + \epsilon
 \end{aligned}$$

| VAR               | Fee                             |                                 | Hour                            |                                 |
|-------------------|---------------------------------|---------------------------------|---------------------------------|---------------------------------|
|                   | 모형 (1) :<br><i>Conformity_1</i> | 모형 (2) :<br><i>Conformity_2</i> | 모형 (3) :<br><i>Conformity_1</i> | 모형 (4) :<br><i>Conformity_2</i> |
| <i>Intercept</i>  | 5.30124***<br>(26.93)           | 5.36085***<br>(26.62)           | 0.46871***<br>(2.70)            | 0.54867***<br>(3.09)            |
| <i>Conformity</i> | -0.04907***<br>(-2.66)          | -0.08919***<br>(-2.96)          | -0.05634***<br>(-3.46)          | -0.10731***<br>(-4.05)          |
| <i>Size</i>       | 0.22230***<br>(31.67)           | 0.22155***<br>(31.48)           | 0.24256***<br>(39.23)           | 0.24143***<br>(38.96)           |
| <i>Lev</i>        | 0.27075***<br>(6.91)            | 0.26894***<br>(6.87)            | 0.12079***<br>(3.50)            | 0.11879***<br>(3.44)            |
| <i>INVREC</i>     | 0.05628<br>(1.40)               | 0.05834<br>(1.45)               | 0.10997***<br>(3.10)            | 0.11265***<br>(3.18)            |
| <i>ROA</i>        | -0.36892***<br>(-5.08)          | -0.36438***<br>(-5.02)          | -0.22953***<br>(-3.59)          | -0.22449***<br>(-3.51)          |
| <i>CFO</i>        | 0.12314<br>1.56                 | 0.12163<br>(1.54)               | -0.07981<br>(-1.15)             | -0.08138<br>(-1.17)             |
| <i>CurrRatio</i>  | -0.0005<br>(-0.20)              | -0.0005<br>(-0.20)              | -0.00253<br>(-1.06)             | -0.00252<br>(-1.06)             |
| <i>Loss</i>       | 0.08159***<br>(5.56)            | 0.08141***<br>(5.54)            | 0.05540***<br>(4.28)            | 0.05513***<br>(4.26)            |
| <i>OWN</i>        | -0.34263***<br>(-9.00)          | -0.34392***<br>(-9.05)          | -0.22278***<br>(-6.65)          | -0.22389***<br>(-6.69)          |
| <i>FORE</i>       | 0.33116***<br>(5.12)            | 0.32710***<br>(5.06)            | 0.11160*<br>(1.96)              | 0.10712*<br>(1.88)              |
| <i>Big4</i>       | 0.25783***<br>(20.26)           | 0.25922***<br>(20.36)           | 0.35232***<br>(31.43)           | 0.35401***<br>(31.57)           |
| <i>Initial</i>    | 0.10615***<br>(7.17)            | 0.10610***<br>(7.17)            | 0.13061***<br>(10.01)           | 0.13050***<br>(10.01)           |
| <i>EXP</i>        | 0.05483***<br>(2.60)            | 0.05553***<br>(2.63)            | 0.04193**<br>(2.26)             | 0.04269**<br>(2.30)             |
| <i>EMP</i>        | 0.1234***<br>(18.97)            | 0.01237***<br>(19.01)           | 0.01131***<br>(19.74)           | 0.01135***<br>(19.80)           |
| 연도 및 산업 더미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 수정 $R^2$          | 0.6693                          | 0.6694                          | 0.7392                          | 0.7395                          |
| F-값               | 254.92                          | 255.08                          | 356.62                          | 357.15                          |
| 총 표본수             | 4016                            | 4016                            | 4016                            | 4016                            |

- 1)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 2) 여기에서, Fee(or Hour) : 감사보수(감사시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Conformity : 감사인 일치성의 대용치 ; Size : 기업규모 ; Lev : 부채비율 ;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ROA : 총자산이익률 ; CurrRatio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CFO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Loss : 손실더미 ; OWN : 대주주지분율 ; FORE : 외국인지분율 ; Big4 : 감사인의규모 ; Initial : 초도감사여부 ; EXP : 수출비중 ; EMP : 종업원수에 루트를 취한 값

감사시간의 통제변수인 감사의 복잡성(INVREC)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감사보수와 정(+)의 관련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관계는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기업규모(Size)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감사보수와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감사보수를 책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비중(EXP)과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해외매출 비중이 클수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보다 크게 느껴 더 높은 수준의 감사보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감사위험에 대한 통제변수인 전기순손실 여부(Loss)와도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총이익률(ROA)의 경우 1% 수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재무적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감사인은 위험을 낮게 인식하여 낮은 감사보수를 책정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배구조 변수들(OWN, FORE)을 보면 대주주 지분율(OWN)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외국인 지분율(FORE)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감사인 규모(Big4)와는 1%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 쓰으며 초도감사 여부(Initial)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여 초도감사 시 감사보수의 할인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3), 모형 (4)의 감사시간(Hour)과 감사인 일치성(Conformity)와의 관계를 보면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여 연결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연결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감사시간을 더 적게 투입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규모(Size)와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사의 복잡성(INVREC)변수 또한 1%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비율(Lev), 수출비중(EXP), 전기순손실 여부(Los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해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전기에 순손실을 공시한 기업일수록 감사위험을 높게 책정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자산총이익률(ROA)는 감사보수와 마찬가지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더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OWN)과 외국인 지분율(FORE)는 각각 1%, 10% 수준에서 유의한 정(+),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감사인 규모(*Big4*)와 초도감사 여부(*Initial*)의 결과도 감사보수와 마찬가지로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초도감사일 경우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연결 실체에 대한 정보환경의 개선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얻고, 감사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더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함으로써 더 적은 감사보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는 Phillips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실체별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수정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 따라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자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 실증 분석한 결과,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적자회피기업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이익조정 유인이 낮은 기업에서는 적자회피기업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적절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사용하여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지식의 전이효과(knowledge spillover)로 인해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얻게 되어 더 적은 노력의 투입으로도 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 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로서 편의가 존재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 측정치 사용하여 동 측정치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고, 동 측정치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공경태 · 박준완. 2014.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 논문집 : 5075-5102.
- 김용식. 2013.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38(2) : 81-112.
- 김유석 · 오광욱 · 정석우. 2009. “대규모 기업집단 내 감사인 동일화가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50 : 241-273.
- 노준화 · 신유진. 2018. “감사인의 특성이 잠정이익 수정 정도에 미치는 영향 : 외감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76(3) : 85-122.
- 라채원 · 이재홍. 2011. “지주회사내 감사인 간의 일치정도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11년도 하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56-294.
- 박수근 · 박재환. 2010. “연결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연결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8(1) : 175-197.
- 박재환 · 김진석. 2019.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20(1) : 147-168.
- \_\_\_\_\_. 박상연. 2011. “감사보수할인이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2(2) : 455-489.
- \_\_\_\_\_. 윤태호 · 김승준. 2014. “감사인 일치성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3(2) : 527-559.
- 손성규 · 오명전 · 이은철. 2009. “타감사인 의견활용과 지배회사 당기순이익의 적정성,” 대한경영학회지 22(3) : 1357-1379.
- 송순영 · 김상현. 2014.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성이 이익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3 : 1-18.
- 신혜정 · 한종수. 2015. “감사인 일치화와 전기오류수정보고”, 회계연구 20(2) : 121-150.
- 이명곤 · 장석진 · 조한석. 2011.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53(1) : 333-362.
- 이영한 · 박정우 · 이정화. 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가 재무제표 공시 및 회계감사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8(3) : 301-330.
- 이은철 · 박석진. 2016.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1(1) : 195-238.
- 조은정 · 정주렴 · 김범준. 2016. “경영자 능력이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5(4) : 37-65.
- 최상태 · 이명곤 · 장석진. 2010. “연결재무제표 주감사인의 규모, 감사비율과 감사품질”. 회계저

널 19(3) : 1–29.

- Bamber, E. M., and L. S. Bamber, 2009. “Discussion of Mandatory audit partner rotation, audit quality, and market perception : Evidence from Taiwa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2) : 393–402.
- DeFond, M.L., and J. J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 145–176.
- Francis, J., and D. Simon. 199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 S. Auditor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 : 145–157.
- Gregory, A. and P. Collier. 1996. “Audit Fees and Auditor Change : An Investigation of the Persistence of Fee Reduction by Type of Chang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 13–28.
- Keune, M. B., and K. M. Johnstone, 2012. “Materiality judgement and the resolution of detected misstatements : The role of managers,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The Accounting Review* 87(5) : 1641–1677.
- Kinney, W., and L. McDaniel. 1989, “Characteristics of firms correcting previously reported quarterly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1(1) : 71–93.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3) : 375–400.
- Lennox, C., Wu, X., and Zhang, T, 2014. “Does mandatory rotation of audit partners improve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9(5) : 1775–1803.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1) : 97–110.
- Phillips, J., Pincus, M., Rego, S.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 491–521.
- Simunic D. 1984.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Fall) : 679–702.
- Simon. D. and J. Francis. 1988, “The Effects of Auditor Change on Audit Fees :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63(April) : 255–269.
- Walker, P. L. and J. R, Casterella. 2000. “The Role of Auditee Profitability in Pricing New Audit Engag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Spring) : 157–167.

# The Effects of Consolidated Entities' Auditor Conformity on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Geon Joo Lee\*\* · Jae Whan Park\*\*\*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uditor conformity in the consolidated entities, using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rather than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prior study as a measure of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audit conformity on the audit quality, focusing on companies listed on the KSE and the KOSDAQ market from 2014 to 2019, are as follows.

The higher level of auditor conform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higher degree and frequency of adjustment. To test of proper proxy of audit quality of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we follow Phillips et al. (2003)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djustment and loss-evasion. The degree of adjust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loss-evasion companies, accordingly the degree of adjustment is used as a proper proxy of audit quality.

Besides, the analysis relation of auditor conformity with audit hour and audit fee using samples of this study shows a negative relation, in common with previous research.

Our research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conformity provides higher audit quality with less audit effort resulting from the auditor's understanding of the group entity. In conclusion, the group auditor conformity enhance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audit of consolidated ent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shows not only the effect of the consolidated entities' auditor conformity on audit quality but the usefulness of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as an audit quality on behalf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at have the threshold.

〈Key words〉 Auditor Conformity,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Audit Quality, Consolidated Entitie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9 and is a revised version of a part of the author's Master dissertation at Chung-Ang University.

\*\* Student in Master Program, College of Account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 grscou@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jaypark1983@cau.ac.kr, Corresponding Author